

한국 전통목조건축 연구의 과제와 방법*

이 상 해**

- I. 이끄는 글
- II. 한국 전통목조건축과 한국건축사 연구의 시작에 관하여
- III. 전통목조건축 연구와 한국건축사의 시대구분에 관하여
- IV. 전통목조건축에 근거한 한국 목조건축사 연구에 관하여
- V. 한국 전통목조건축에 미친 중국 목조건축의 영향에 관하여
- VI. 전통목조건축 연구의 동아시아적 시각 확대에 관하여
- VII. 맺는 글

I. 이끄는 글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일본의 전통건축은 서양·인도·회교문화권의 돌이나 벽돌로 지은 조적조 건축과 달리 木造 架構式 구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목조 가구식 구조의 전통은 선사시대 주거지 遺址에서 발굴되는 나무 기둥 자리, 그리

* 이 연구는 2003년도 두뇌한국21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성균관대학교 교수.

고 “상고 시대에는 헐거하거나 들판에서 살았는데, 후세의 성인이 그것을 궁실로 바꾸었다 (上古穴居而野處, 後世聖人易之以宮室).”고 말한 『주역』 「계사전」에 나오는 구절 등으로 미루어 아주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先秦시대에는 기거하기 위한 건물을 ‘궁실’ 이라고 했는데, ‘성인이 대체한 궁실’의 구조를 목조로 추정하는 근거는 「계사전」에 “위에 들보를 얹고 아래에 공간을 만들었으니 대개 대장괘에서 취했다(上棟下宇, 蓋取諸大壯).”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여기서 위에 얹은 들보는 건물 전체 골조를 대표한 것인데, ‘들보’를 얹은 것으로 미루어 그 구조는 목조임을 알 수 있고, ‘대장괘에서 취했다.’고 한 것은 그 구조가 견고했음을 뜻한다.

「계사전」에 나오는 들보 아래의 공간인 ‘宇’의 원래 의미는 ‘屋邊’, 즉 ‘처마’라고 『說文解字』에 적혀 있다. 비와 바람을 막는 서까래 아래의 ‘제한된 공간’이 ‘宇’의 원래 의미다. 삼라만상을 망라하고 또 무엇이나 완비하고 있음을 뜻하는 ‘宇宙’의 ‘宇’는 사방과 상하를 지칭하고, ‘宙’는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를 지칭한다. 宇는 천지 만물을 용납하는 ‘공간’이고, 宙는 ‘시간’이다. ‘시간’의 의미를 지닌 ‘宙’의 원래 의미는 마룻대와 들보이다.

여기서, 고대 동양사회의 건축 행위는 사람이 기거하기 위한 제한된 공간을 만드는 것을 뜻하며, 그 구조는 오래 우뚝 서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천지 우주는 ‘큰 집’이고, 사람이 거주하는 집은 하나의 ‘작은 우주’인 것으로 파악된 것이 동양 전통건축이다. 이를 요약하면, 천지 우주의 공간 및 시간과 관련된 동양 전통건축은 ‘上棟下宇 제도’를 바탕으로 한 목조건축으로 발전하였으며, 한국 전통건축 역시 이 제도에 바탕을 둔 목조건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목조건축에 기반을 둔 동양 전통건축은 ‘나무를 다루는 기술(攻木之工)’을 가진 匠人과 크게 관계되어 있다. 『주례』 「동관 고공기」는 모든 考工에 대해서 “하늘에는 때(時)가 있고, 땅에는 기(氣)가 있으며, 재료에는 아름다움(美)이 있고, 기술자(工)에게는 솜씨(巧)가 있는데, 이 네 가지가 합해져야 비로소 좋은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재료가 아름답고 기술자가 솜씨가 있는데도 좋은 것을 만들 수 없는 이유는 하늘의 때와 땅의 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天有時 地有氣 材有美 工有巧 合此四者 然後可以爲良 材美工巧 然而不良 則不時 不得地氣也).”라고 하였다.

이 말은 하늘이 지배하는 시간, 땅에 내재하는 氣, 재료의 고유한 특성, 기술자의 공교한 솜씨가 제대로 합하였을 때 좋은 것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만들(工)’에는 시간·공간·재료·기술·미가 잘 어우러져야 하는데, 건축 행위도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좀 진부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동양건축은 서양건

축이 건축의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는 튼튼함(firmitas), 쓸모(utilitas), 아름다움(venustas), 다시 말해 구조, 기능, 미에 시간성과 공간성을 더 보태어 건축을 파악하고 있다. 동양 전통 건축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하늘의 때(時), 땅의 기(氣)'가 '재료의 아름다움(美), 기술자(工)의 솜씨(巧)'와 합해져야 비로소 좋은 건축이 된다.

한국 전통건축의 중심을 차지하였던 목조건축에 대한 연구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건축의 기능과 용도에 맞추어 재료를 제대로 다루고 기술을 한껏 발휘해야 하는 일은 구조나 기능과 관계가 있는 기법에 속하고, 시간성과 공간성은 건축을 지배한 원리와 사상에 속하는 형이상학적인 것과 관계된다. 따라서 전통목조건축에 관한 연구는 건축계획, 건축구조와 기술에 속하는 것 외에도, 건축을 가능케 한 사상이나 이론에 속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자는 건축을 생산 가능케 한 건축 기술, 재료 및 기법과 연관되고, 후자는 건축을 생산 가능케 한 사상 및 정신과 연관된다.

이 글은 한국 전통목조건축 중에서 기술, 기법과 관련된 연구 과제와 방법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II. 한국 전통목조건축과 한국건축사 연구의 시작에 관하여

주지하듯이 근대적 관점에 의한 한국건축사 연구는 1900년대 초 일본인 학자들에 의하여 시작되었으며, 주로 목조건축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일본인 학자들은 한국 전통목조건축의 공포에 주목하여 전통건축을 주로 연구하였다. 그들은 공포의 위치와 수량에 근거하여 '天竺樣'과 '唐樣'이란 명칭을 사용하여 공포를 분류하고 구분하여 천축양은 중국 남송 계통의 건축, 당양은 중국 북송 계통의 건축과 통하는 '양식'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분류 방식은 그후 스기야마 신조(杉山信三)에 의하여 그의 『高麗末 朝鮮初の 木造建築에 關한 研究』에서 천축양은 '疎組', 당양은 '詰組'로 이름이 바뀌어 사용되었다. 이 분류 방식을 바탕으로 해방 후 우리나라 학자들은 소조는 '柱心包', 힐조는 '多包'라는 새로운 용어를 붙여 한국목조건축 분류의 기본틀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 새로운 용어의 시도는 한국 전통목조건축 연구의 중요한 성과이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용어를 우리나라 건축에 받아들여 사용하는 것은 웃지 못할 넌센스"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본인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소조, 힐조에 해당하는 공포로 조영된 건축이 각각 중국 남방과 북방 건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하였다고 하였지만, 그렇게 언급한 글에서 해당하는 그 지방 중국건축의 구체적인 실례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주심포는 중국 대륙이 금에 의해 정치적 격변이 일어나 宋이 세력 판도를 남쪽으로 옮기면서 당시 華南 지방에 성행했던 새로운 건축양식이 한국에 들어온 것이다. 한편, 다포는 몽고족이 중국 대륙을 점령하여 元을 세우면서 그 당시 대륙의 동북 지방에 성행했던 건축 양식을 채용하게 되었는데, 이 양식이 한국과의 교류 과정에서 한반도에 전해지게 된 것이다.”라고 기술할 뿐이다.

그런데, 중국 남방에는 중국 북방과 구별되는 干闌式도1 구조와 穿斗式도2 목구조가 일찍이 발전하여 중국 남방 목조건축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宋이 세력 판도를 남쪽으로 옮기면서 당시 華南 지방에 성행했던 새로운 건축양식”은 중국 북방과 남방에 모두 나타나는 건축 ‘양식’이다.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은 채, 일본인 학자들은 한국 전통목조건축의 공포를 소조(주심포)와 힐조(다포)로 분류하여 중국건축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소조, 힐조는 공포가 창방(과 평방) 위에 놓이는 위치, 그리고 기둥과 연관된 공포의 숫자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지만, 중국에서는 공포가 놓이는 위치나 공포의 숫자를 바탕으로 공포의 이름을 붙이거나 분류하지 않고, 공포가 짜여진 방식에 근거하여 宋代의 공포를 偷心造도3, 計心造도4, 單拱造, 重拱造 등으로 분류하는데, 이 분류법은 주심포, 다포로 분류하여 명칭을 붙인 방식과 개념을 달리한다. 중국에서도 공포가 조립된 위치에 따라 柱頭鋪作, 補間鋪作, 轉角鋪作 등으로 명칭을 붙이기는 하지만, 이는 공포의 분류법에 속하지 않는다.

소조, 힐조로 공포를 분류하는 방식은 목조건축에서 공포가 架構法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류법에 의한 주심포, 다포로 불리는 명칭은 지금까지 한국 전통목조건축의 공포 분류법과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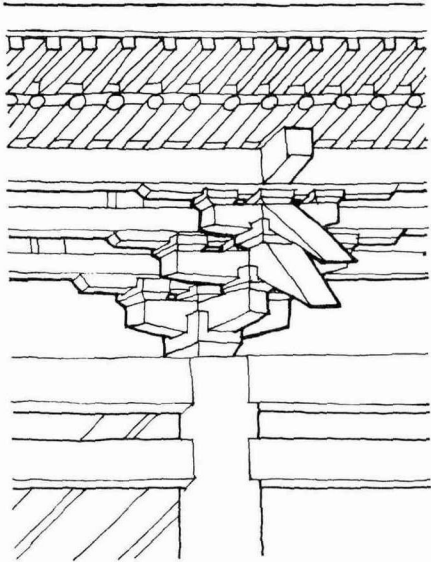
또한, 일본인 학자들에 의한 소조, 힐조 분류법은 공포를 서양건축의 ‘양식’과 같은 맥락으로 파악하여 한국 전통목조건축의 분류법에 적용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서양건축에서 건축의 시대구분을 하기 위하여, 또는 건축의 특성을 서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양식’이라는 단어는 그리스 건축의 기둥 위의 ‘오더(order)’ 라든가, 로마네스크 양식, 고딕 양식, 르네상스 양식 등과 같은 건축의 ‘양식(style)’을 뜻한다. 그런데, 그리스 건축의 오더는 건축 구조나 기법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며, 로마네스크 양식, 고딕 양식 등을 지칭하는



도1 河姆渡 유지(간난식 구조)



도2 천두식 구조



도3 투심조 실레, 화림사 내부

도4 계심조(돈황석굴)

데 사용되는 용어인 '양식'은 건축 평면, 입면 및 구조의 구성 방식 및 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전통목조건축의 공포는 평면 형식에 의한 구조체계와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조적조로 이루어진 서양건축을 '양식'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분류하는 방법은 타당성을 가질 수 있지만, 목조로 이루어진 한국 전통건축은 건축의 '양식'에 속하지 않고 목구조 기

법의 '법식'에 속한다. 때문에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처음 시도되어 붙여진 목조건축의 공포 명칭과 공포의 분류 방법은 재고되어야 하고, 목조 가구법 및 공포의 특성에 근거한 명칭과 분류법이 다시 붙여져야 한다.

Ⅲ. 전통목조건축 연구와 한국건축사의 시대구분에 관하여

시대구분은 한국건축사의 진행 단계를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한국건축의 역사를 어떻게 서술하고,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시대구분에 근거한 건축사의 서술과 해석에는 특정 시기의 건축은 각각 그 내용이나 형식, 그리고 특성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국건축사의 시대구분은 건축사를 해석하는 여러 관점과 사관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선 전기에 세워진 궁궐이나 관아 건축은 고려와 다른 정치·사회 체제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려와 구분되는 건축을 한 것으로 전제하여 한국건축사의 시대구분을 정치·사회적 변화와 연관하여 왕조 중심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왕조 중심으로 한국건축사를 시대구분 하는 연구자는 "인문적인 여건 변혁의 기본 원인을 가져오는 국가의 정치 상황의 큰 변화"에 따라 시대구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방법은 충분한 타당성과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건축문화의 양식의 발전을 고찰하기 위한 시대구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원칙"에 따르게 된다고 한다.

왕조 중심으로 한국건축사의 시대를 나눌 경우, 시대구분에 의한 각 시대의 특성이 부각되어 서술되면 그 방법은 타당성을 갖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조선 전기의 건축은 고려시대의 건축과 어떤 점이 얼마나 다른가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목구조의 경우, 한 왕조가 교체되었다고 해서 바로 다른 법식의 목조 건축이 곧 대두되는 예는 흔하지 않다. 장인들에 의한 목조 법식의 변화는 정치 상황의 변화와 달리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정치·사회적 변화에 근거한 왕조 중심의 건축사 시대구분은 또한 한 왕조를 전기, 후기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 이전과 임진왜란 이후는 정치·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사회적 변화에 근거하여 조선 전기와 후기로 시대구분을 하게 된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건축사를 조선 전기의 건축과 후기의 건축으로 구분하여 서술

할 경우, 임진왜란을 경계로 해서 그 전후의 건축의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밝혀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조선시대의 건축은 관점에 따라, 건축 대상에 따라 전기와 후기로 또는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런데, 목조건축의 범식의 측면에서 조선시대의 건축을 고찰하면, 임진왜란을 경계로 해서 목조건축의 특성이 잘 구분되지 않는 어려움이 따른다. 임진왜란을 경계로 해서 전기와 후기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임진왜란을 사이에 두고 그 전후가 이어지고 있으며, 오히려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부로 가면서 목조건축의 범식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조선 전기와 후기의 사이에 조선 중기 건축을 설정한 시대구분이 가능함을 알게 된다.

그러한 실례는 유교건축이나 불교건축에 잘 나타난다. 종묘와 성균관은 임진왜란 전과 같은 모습과 배치로 재건된다. 특히, 書院, 樓亭 등 유교건축에서는 사림 세력의 성장이 17세기 말에서 임진왜란을 지나 17세기 후반까지 이어지는 것과 맥을 같이 하며 질박하고 단아한 건축미를 보이는 목조 기법을 보이는 건물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서원은 물론이고, 이 시기에 지어지는 정자는 조선 초기에 세워진 정자와 달리 온돌과 마루가 있는 건축으로 조영되어 정자는 휴식의 장소뿐 아니라 사대부 선비들의 학문 탐구의 장소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이 시기에 조선 고유의 정자 건축 형식으로 정착한 정자는 藏修와 遊息을 하는 공간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성리학이 조선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반영한다. 성리학에서 장수란 유생들이 마음을 집중해서 학문에 힘쓰며 수양을 하는 것을, 유식이란 학문하는 긴장에서 벗어나 편안히 쉬고 즐기면서도 학문에 마음을 두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18세기를 지나면서 서원과 정자는 변색한 건축으로 바뀌게 된다.

불교건축의 경우, 임진왜란으로 인한 전쟁 복구는 제한된 여건에서 이루어지다가 본격적인 재건은 17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루어지게 되고, 특히 18세기가 되면서 불교사찰의 새로운 건축 범식을 보여준다. 공포는 다포와 익공으로 양립되는 현상을 보이고 쇠서 위에 봉황 머리로 장식한 조각이 올려지거나 연봉 장식 조각이 가미되어 모두 화려해지고 장식이 많이 첨가된다. 임진왜란으로 불에 탄 옛 절터에 다시 법당이 들어서고 남도 해안가와 강을 따라 새로 사찰이 건립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목조건축을 건축 범식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왕조 중심의 시대구분과 다른 시대구분을 할 수 있다. '건축의 범식'이라는 것이 한 왕조의 운명에 따라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건축은 넓게는 당시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좁게는 건축의 기법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은 사회·경제의 변화 등 외부적인

조건이 바뀌면, 건축을 가능케 한 재료, 즉 목재 자체가 지니는 고유한 物性도 거기에 맞추어 바뀌어 사용된다.

나아가, 목조 법식에 바탕을 둔 건축사의 시대구분은 건축생산사에 바탕을 둔 연구로 발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동욱은 『韓國建築工匠史研究』에서 건축이 형성되는 역사,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행정관서, 생산조직과 직접 참가한 工匠들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큰 건축역사의 흐름 속에서 시대구분을 시도한 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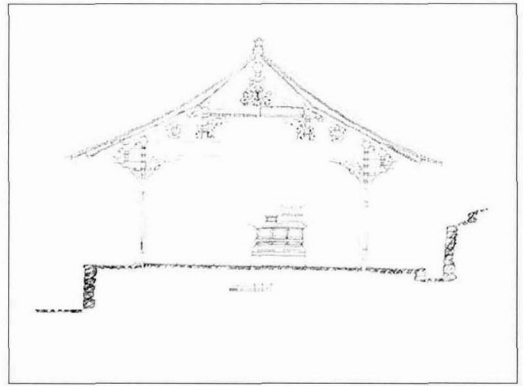
건축생산사 측면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18세기 말 이후 공장의 노임제가 정착됨에 따라 공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구조적으로 불필요한 부재를 줄이고 가공이 용이한 방법으로 단순화되는 경향의 공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게 된다. 또, 조선 후기가 되면 공사 조직체계에 목수편수, 석수편수, 온돌편수, 연목편수, 창호편수 등 특정 부분의 일만 담당하는 편수가 생기면서 건물의 전체적인 통일성이 약해지게 된 사실을 규명할 수 있게 된다.

IV. 전통목조건축에 근거한 한국 목조건축사 연구에 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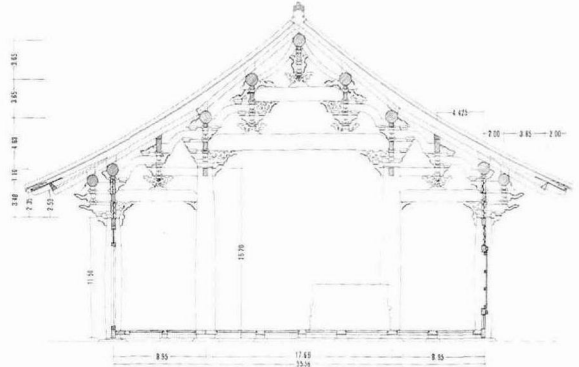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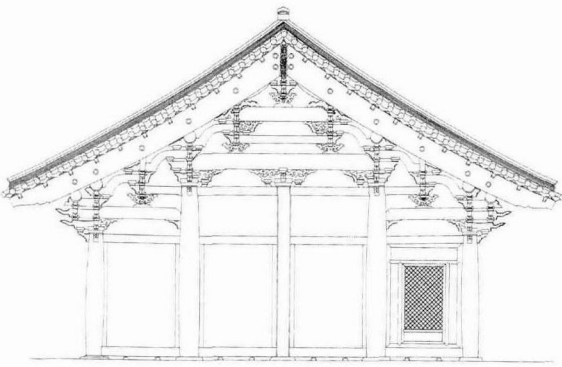
전통목조건축에 대한 연구는 공포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여 목조 가구법의 변화 등을 통하여 한국건축사를 목조건축사의 관점에서 서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조선 초기에 세워진 주심포 건물인 무위사 극락전 도5은 수덕사 대웅전 도6과 비슷한 법식을 한 맞배지붕 건물이지만, 가구법에서 수덕사 대웅전과 여러 가지 차이점을 가졌다. 무위사 극락전에는 실내 공간을 넓게 사용하기 위해 내부에 高柱를 세우지 않았으며, 고려 시대 주심포 건물이 천장 없이 노출된 연등천장으로 된 것과는 달리 보개천장을 설치하고 후불벽을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벽면에 그린 불화로 건물 내부 전체가 부처의 세계가 되도록 표현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목조건축과 건축공간의 사용 및 가구법을 목조건축역사의 진전과 연계시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남대문(승례문)과 동대문(홍인지문)은 조선시대 도성의 중요한 문루였다. 2층 문루인 이 두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로서 기둥 배열 방식이나 가구법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세부 기법과 공포 조립 방식 및 장식에는 15세기, 19세기 목조건축의 특성을 대조적으로 보여준다. 1448년 개축한 남대문은 아래로 처진 쇠서와 교두형으로



도 5 무위사 극락전 측면과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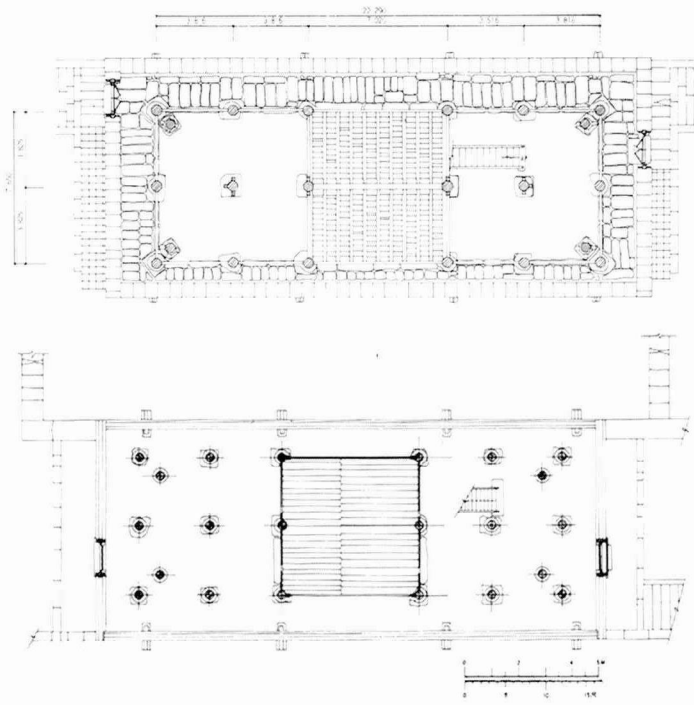


도 6 수덕사 대웅전 측면도와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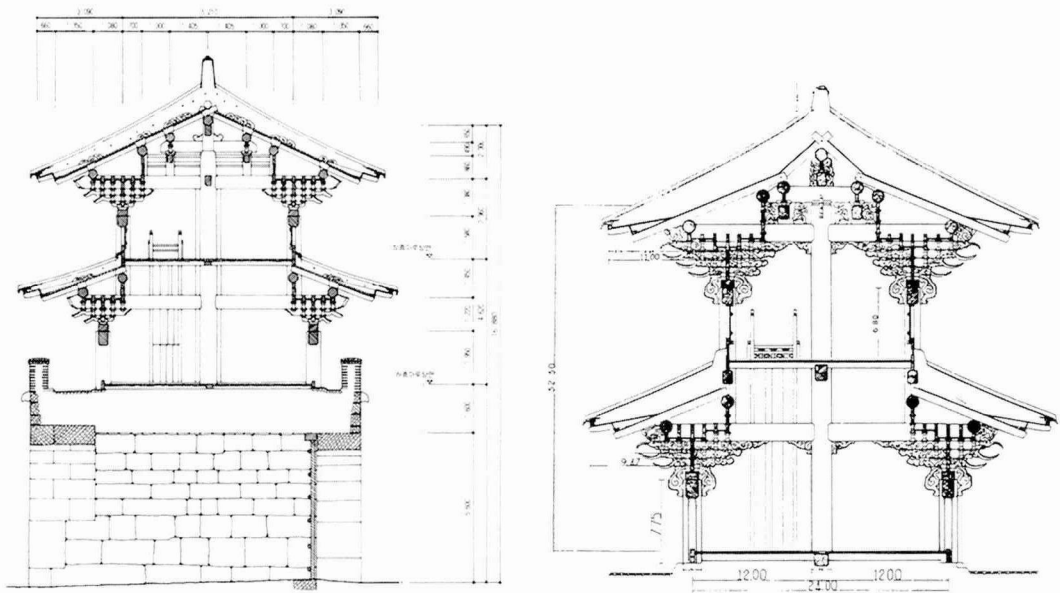
처리한 내부 첨차의 끝 등으로 조선 초기 목조의 법식을 보여주는 반면, 1869년에 재건된 동대문은 기둥 상부에 안초공을 두고 살미 외부 끝을 앙서와 수서로 처리하고 내부를 운공으로 처리하여 19세기 건축의 섬세하고 곡선으로 처리된 장식을 반영한다^{7, 8}.

임진왜란을 지나 18세기가 되면 건축물은 긴 부재가 필요한 주심포식 공포 대신, 짧은 부재가 가능한 다포식 공포의 건축을 선호하게 된다. 이 시기의 건축은 부재에 장엄이 배풀어져 부재가 작게 보이는 것이 극복될 뿐만 아니라 실내가 더 화려해진다⁹. 이러한 내용은 목구조를 통해 통사적 고찰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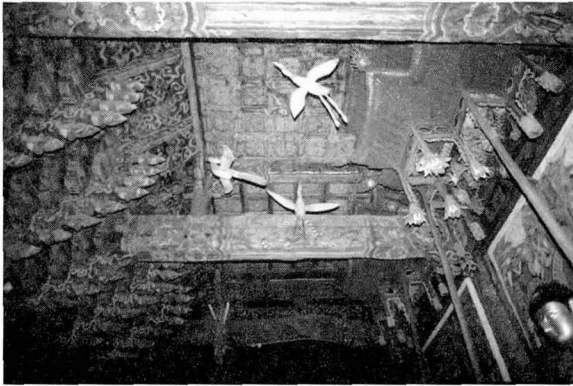
이외에도 공포를 구성하는 주두, 소로, 첨차, 살미첨차, 안초공 등 각 부재의 크기와 조형성을 시대와 지역별로 살피고, 또 조영에 참가한 장인과 연관시켜 건축의 특성을 목조건



도7 남대문 및 동대문 평면도



도8 남대문 및 동대문 단면도



도9 생계사 대웅전 실내

축사의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다. 공포뿐만 아니라 인자대공과 솟을 합장, 동자주, 대공, 화반 사이의 상호관계도 시대적 변천을 읽는 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결구 방식, 형태, 사용 도구, 제작 및 시공 과정, 건축술 등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시대의 흐름과 함께 다르게 나타나는 기둥, 첨차의 맞춤 방법, 부재들의 맞춤과 끼움 방법 등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도 이루어져

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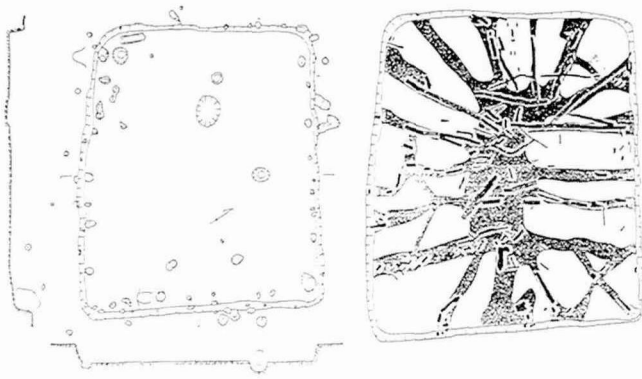
건축역사는 건축물이라는 실체를 바탕으로 구성되지만 그것이 집합되어 표출될 때는 거대한 추상체를 이룬다. 그 건축을 생산 가능케 한 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추상체이기 때문에 전달되는 의미 체계가 있다. 전통목조건축에 대한 연구도 건축물을 형성하는 구조물 자체는 관념적 구성이 아니지만, 그것이 추상체로 집약되어 집합적으로 나타날 때 가진 힘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V. 한국 전통목조건축에 미친 중국 목조건축의 영향에 관하여

한국 전통목조건축이 중국 목조건축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견해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한국건축의 시작은 선사시대의 유구 및 관련 문헌을 통해 움집(穴居)과 巢居 그리고 귀틀집(井幹式 구조)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구조는 목조 뼈대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⁰. 선사시대에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한국 목조건축은 세월이 흘러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중국의 목조 법식도 접하게 된다.

한국 목조건축은 중국과 빈번한 교류를 가지기 시작했던 삼국시대부터 당시 중국의 목조기법도 접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자생적으로 이루어져왔던 목조 법식에도 궁궐, 관아,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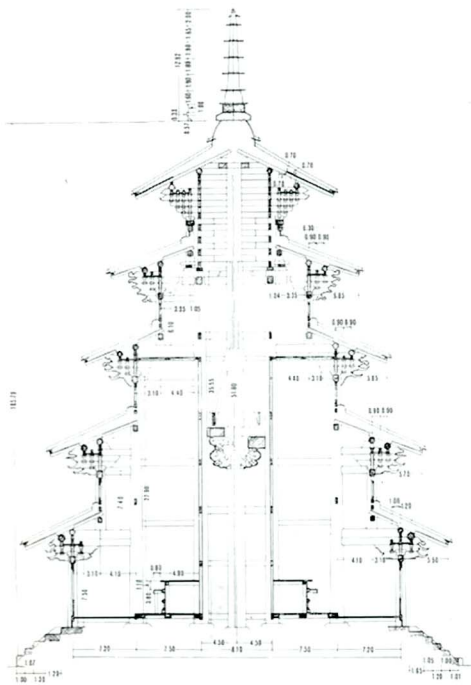
도 10 송국리 유적

사 건축을 중심으로 변화가 일어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당시 중국을 통해 접하게 된 목조 건축의 기법은 고구려 고분 구조와 벽화, 안압지 출토 목조 부재 등을 통해 일부 기본적인 내용이 파악되었으며, 그 기법은 봉정사 극락전·부석사 무량수전·수덕사 대웅전·은혜사 거조암 영산전 등 현존하는 고려 말 건축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현존하는 고려 말 목조건축의 가구법이나 공포의 구성은 현존하는 중국의 어느 건축에도 상응하지 않으며, 봉정사 극락전·부석사 무량수전·수덕사 대웅전·거조암 영산전 등의 목조 법식은 한국 내에서도 각기 다른 계통의 기법을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비록 목조건축의 기법이 중국건축에서 수용되었다 하더라도 당시 장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 땅에서 해오던 기법을 바탕으로 선택적으로 중국건축의 목조 기법을 받아들였음을 뜻한다.

그런데, 일본인 학자들에 의한 한국건축사 연구는 한국 전통목조건축의 독자적 측면을 일종의 지역성으로 평가하고, 한국건축사를 중국의 자극에 의해서만 발전이 이루어졌던 타율적이고 사대주의적인 역사 전개 과정으로 파악하는 이른바 식민사관으로 나타나게 하는 병폐를 남겼다.

일본인 학자들에 의한 한국건축의 타율성에 대한 견해는 한국미술사를 처음으로 학문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연구한 학자로 평가받는 고유섭(1905-1944)으로 하여금 『한국건축미술사초고』에서 “조선건축의 계통은 중국계에 속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였고, “이러한 계통 속의 일 부문으로서의 조선건축은 그 수법 형식에 있어서 조금도 中國本系の 양식을 이탈함이 없으나 또한 향토색의 殊異를 따라 다소 상위함이 있다.”는 것으로 주장하게 하였다. 고유섭은 “그러면 이러한 향토색을 구비한 조선건축이 他方隣國에도 영향함이 있느냐 하면 그것도 이렇다 할 만한 것이 없다. 또 중국 그것과 다른 독창이 있느냐 하면 그것도 이렇다 할



도11 범주사 팔상전 단면도

만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조선건축은 중국양식의 一退化에 지나지 않는다 할 수 밖에 없다. 조선은 중국의 양식을 전부 포괄하여 그것을 변형시키지 못하고 다만 조선의 힘이 자라는 한에서 그를 섭취하고 말았다. 이것이 조선건축의 동양의 있어서의 지위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고유성은 고구려 고분의 누각도에 대해 “이는 순연한 목조식 건축이 아니라 중국식 목조건축 수법과 전래의 고구려의 토석건축 수법과의 합임을 엿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건축 배치가 정연한 좌우 평행을 고집함에 비하여 여기에 나타난 배치는 벌써 평행을 깨쳤을 뿐만 아니라...”고 하면서 중국건축의 틀에 포함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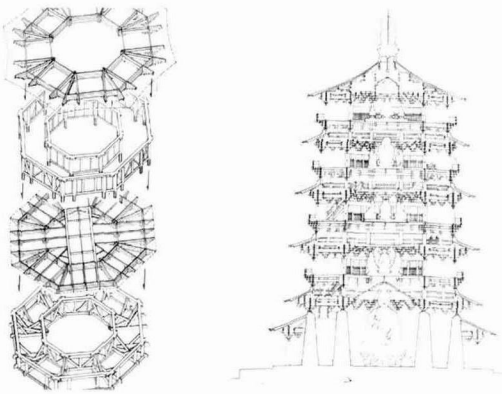
이제는 진부한 얘기가 되었지만 타율성, 정체성, 주체성 결여 등으로 집약되는 일본인 학자들에 의한 한국건축사에 대한 해석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한국건축의 역사가 조선 왕조의 멸망과 함께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단절되었다는 시각도 극복되었다.

이제는 진부한 얘기가 되었지만 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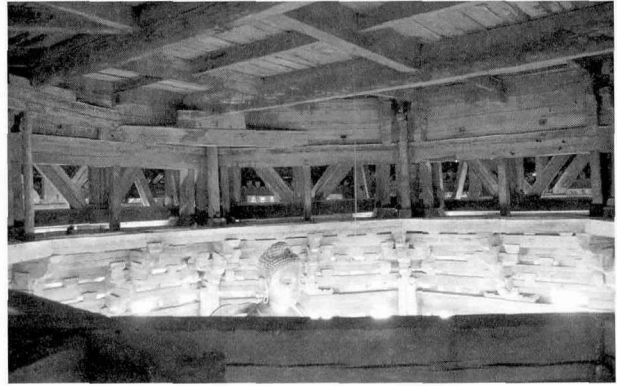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는 한국 전통목조건축이 중국건축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에 대한 것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전통목조건축의 어떤 부분이 얼마나 중국건축과 어떻게 다른가를 고찰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의 장인들이 익혀 온 목조 기법은 중국에는 없는 목조 법식을 만든 것으로, 즉 중국에서 수용한 법식을 버리게 되었으며, 이는 중국에 없는 것으로도 증명이 된다.

예를 들어, 木塔의 경우, 한국의 목탑은 황룡사 목탑·쌍봉사 대웅전·범주사 팔상전 도11 같이 四天柱와 心柱가 중심이 된 가구법으로 이루어졌지만, 중국의 목탑도12,13이나 다층 목구조 건축에 심주가 있는 가구법으로 된 것은 없다.

중층 구조로 된 건축의 경우, 내부에 고주를 설치하여 중층으로 만드는 방식은 무량사 극락전 도14과 같이 내진주가 곧 중층 구조의 외벽을 형성하는 邊柱가 되도록 하는 것과 법



도 12 응현 목탑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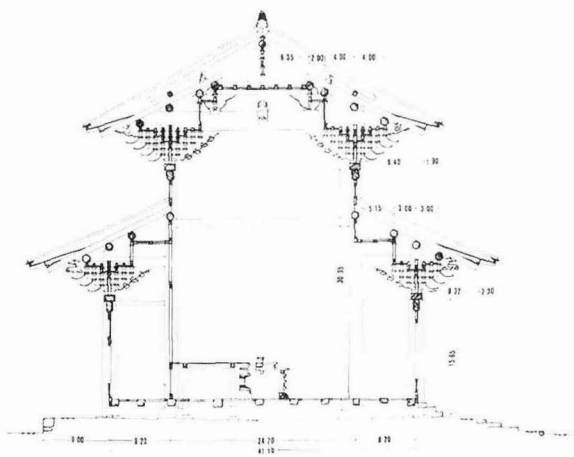


도 13 응현 목탑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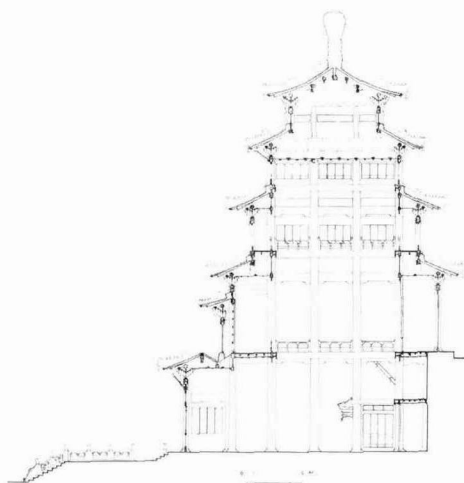
주사 대웅전·창덕궁 인정전과 같이 내진주와 외진주 사이 뒷보 위에 번주를 올려 중층의 외벽을 형성하는 것이 있다. 무량사 극락전과 같은 가구법을 한 건축은 중국에서 보이지 않으며, 법주사 대웅전과 같은 가구법으로 된 건축은 1755년에 건립된 承德 外八廟의 하나인 普寧寺 大乘閣 도15에서만 보인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일층을 副階로 처리하여 중층 구조를 만든다. 이 두 가지 중층 구조의 건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목조건축 기법은 비록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으나 중국과 다른 가구법으로 중층 건축이 조영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다음으로, 중국건축의 영향과 연계시켜 언급할 필요가 있는 목조 법식으로 下昂式 구조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1605년에 건립된 화암사 극락전 도16, 17이 하양 구조를 하고 있을 뿐, 다른 건축에는 보이지 않고, 금산사 금강문 등에서 하양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 목조 건축물 중에는 하양 구조를 한 것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다. 우리나라에도 중국이나 일본처럼 하양식 구조로 된 건축이 얼마나 많이 건립되었는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만약 하양식으로 세워진 건물이 많이 있었다면, 왜 우리나라에서는 하양식 구조의 목조건물이 사라졌는지, 더 이상 세워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 이유가 어떠한 것이든 하양식 목구조가 우리나라에는 부적합하였기 때문일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건축은 단순히 기술의 이전으로만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다.

따라서, 목조 건축의 법식을 외래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받아들인 건축 법식이나 형식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한국화되어 갔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목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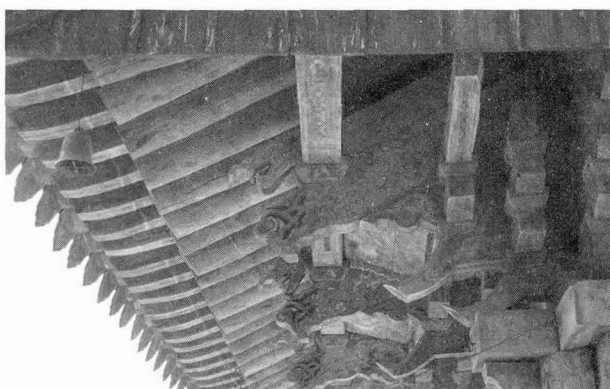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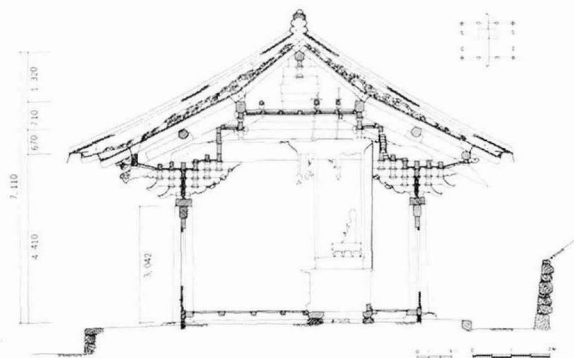


도 14 무량사 극락전 단면도



도 15 승덕 보녕사 대승각 단면도

도 16 화암사 극락전 단면도



도 17 화암사 극락전 하방



도 18 익공 실례: 종묘 정전

가구법, 뒷칸 처리 방식, 대들보 머리 처리 및 거는 방식, 연화두문 등 세부 기법에서 중국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방면으로 확대되어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전통목조건축을 건축 미학의 측면에서 연구할 대상이기도 하다. 전통목조건축을 건축 미학의 차원에서 고찰하면 한국건축이 “중국대륙 건축문화의 일방적인 轉移” 혹은 “중국건축의 한 갈래에 속하는 것”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건축이 중국건축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어떤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부분이 얼마나 다른가를 고찰하는 것도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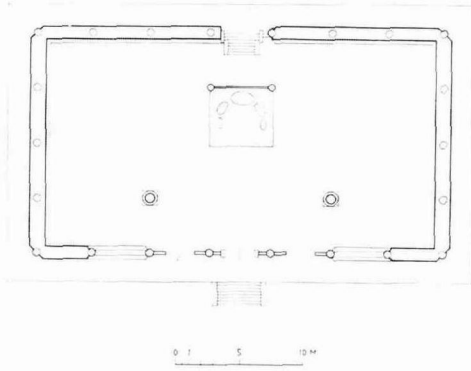
예를 들어, 조선시대가 되면 중국에는 없는 익공식 구조가 정착하게 된다. 관청, 서원 건축이나 사찰 건축에 사용되는, 소박하고 간소한 결구법을 바탕으로 하는 익공도¹⁸은 상부 부재를 받쳐준다고 해서 立工, 또는 葉工으로 불리다가 조선 후기에 들어와 익공으로 불리게 된다. 한국 특유의 목구조 형식인 익공의 발생, 기원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에 차이가 있지만, 익공은 경제적으로 해결되는 구조 기법, 부재가 많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VI. 전통목조건축 연구의 동아시아적 시각 확대에 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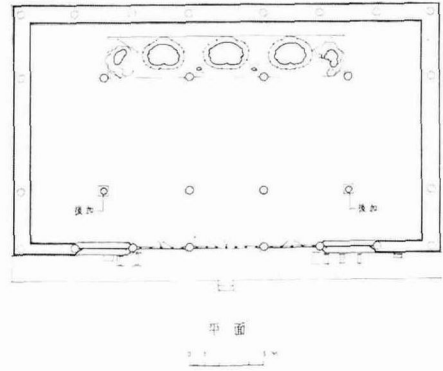
목구조 건축에 대한 연구는 당시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한국의 주심포 건축이 중국의 華南 지방 南宋 건축에서, 다포 건축이 華北 지방 元나라 건축에서 유입되었다는 견해에서 벗어나 좀더 큰 시각, 즉 동아시아 건축사라는 차원에서 동아시아 전통목조건축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명은 한국건축을 중국건축의 일방적인 영향으로 보거나, 중국 전통건축을 우리의 입장에서만 보려는 시각에서 벗어나게 한다.

중국 본토는 漢族뿐 아니라 이민족에 의해 위진남북조시대 이후 여러 차례 지배되었다. 이민족에 의해 이루어진 건축과 이를 한족이 수용한 부분에 대한 고찰은 동아시아 건축의 차원으로 눈을 돌리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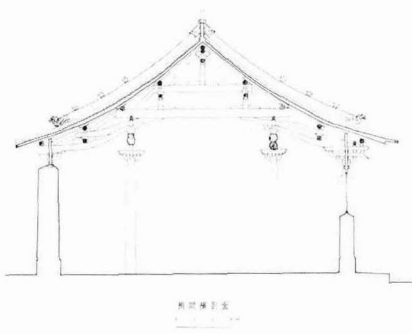
예를 들어, 운강석굴을 조성한 北魏 민족은 중국 장안을 중심으로 전개된 비단길과는 다른 길로 서역과 지중해 지방을 교왕했음을 석굴에 그려진 벽화로 알 수 있다. 특히, 이민족에 의하여 건립된 遼, 金, 元 시기에 이루어진 건축은 가구법과 평면의 기둥 배열, 공포에



도 19 감주법 실례: 불광사 문수전 평면도



도 20 이주법 실례: 광승하사 후대전 평면도



도 21 광승하사 후대전 단면도



도 22 대동 선화사 삼성전 사공

서 다른 시기에 조영된 건축과 다른 점이 있다. 이 시기가 되면 宋代까지 보이지 않던 減柱法 도19과 移柱法 도20이 나타나고, 廣勝下寺 大殿 도21과 같은 가구법이 나타나고 공포에는 斜拱 도22이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明代에 이르러 사라진다. 이러한 내용은 현지 조사를 통해 더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미화된 중국건축사, 漢族 중심의 중국건축사를 다시 보게 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목조 건축의 역사적 전개와 원인에 관한 연구도 동아시아 건축의 차원에서 고찰할 측면이 있다. 특히, 왜 동양 전통건축은 서양과 같이 조적조 구조를 채택하지 않고 목조 가구식 구조로 발전되었는가에 대한 연구는 동아시아 건축의 정체성을 언급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부문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연구는 아직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지만, 중국 학자들의 연구 중에는 목조 가구식 구조의 건축이 발전한 사실에 대한 견해를 피력한 내용이

있다.

劉致平은 자신의 저서 『중국건축 유형 및 결구(中國建築類型及結構)』에서 “중국에서 최초로 개척된 지역, 곧 中原 등의 황토지역에는 나무가 많고 양질의 돌이 적었다. 그러므로 석조 건축이 아주 적다.”고 하며 나무와 돌의 존재 여부 문제부터 논하였다.

그러나, 조셉 니덤은 이러한 견해와 다르게 “중국에는 유럽이나 서아시아와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건조하기에 적합한 돌이 없기 때문에 단지 陵墓, 華表, 기념비 등을 만들거나, 도로의 보도, 마당, 작은 길을 만드는 데만 돌을 사용했을 뿐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

徐敬直은 그의 *Chinese Architecture: Past and Contemporary*에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농업에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하였고, 경제 수준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목조 건물이 비록 불에 타기 쉽기는 하지만 이천여 년 동안 보편적인 건축 방법으로 존재해왔다.”고 하며 중국에서 목조 가구식 구조가 채택되어 발전한 것은 사회·경제적 이유에 근거한다고 보았다.

조셉 니덤 역시 이 문제를 중국의 노예제도와 관련지어 “서양에 노예제도가 존재하였던 시기와 같은 시기의 중국에는 그러한 제도가 아직 없었다. 서양은 당시에 석조 건축물을 짓기 위해 수천 명의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었다. 아시리아나 이집트건축의 거대한 석조 조각띠(frieze)와 같은 것은 중국 문화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바로 대량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커다란 돌을 운반한 뒤 건축과 조각에 사용하였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郭沫若이 자신의 『奴隸制時代』에서 고대 중국에 노예가 존재했다고 하는 주장이 근거가 있다면, 목구조의 채용은 노예의 존재 여부에 대한 문제와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순수하게 건축 기술의 측면에서만 논한다면 목조의 장점은 바로 석조의 결점이 되고, 석조의 장점은 곧 목조의 단점이 된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는 세계관과 연관되어 해석될 측면이 있다.

李允鉾은 그의 『華夏意匠』에서 “중국역사와 서양역사의 한 가지 뚜렷한 차이는 중국역사의 어떤 시기에도 神權이 모든 것을 능가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서양건축사가 신전, 종교건축 등 神本에 바탕을 둔 건축의 전개였다고 한다면, 동양건축은 기본적으로 궁전 등 人本을 위주로 하고 있는 건축이다. 이는 이른바 人本·神本·物本の 문화적 관념의 차이와 관련지어 건축 재료의 선택에 대해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VII. 맺는 글

이상 '上棟下宇 제도'에 바탕으로 둔 한국 전통목조건축은 서양건축과 다를 뿐만 아니라 중국건축과도 차별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00년대 초 일본인 학자들에 의하여 목조건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국건축사 연구는 공포의 위치와 숫자에 근거하여 '천축양(소조)'과 '당양(힐조)'이란 명칭을 사용하여 공포가 분류되었으며, 이 분류법은 해방 후 우리나라 학자들로 하여금 '주심포', '다포'라는 새로운 용어를 각각 붙여 한국목조건축을 분류하여 지금까지 사용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둘째, 전통목조건축을 바탕으로 한국건축사를 시대구분 할 경우 왕조 중심의 시대구분과 다른 시대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언급하였으며, 이는 목조건축 자체의 내재적인 측면에서 고찰된 결과란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전통목조건축에 대한 연구는 공포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여 목조 가구법의 변화 등을 통하여 한국건축사를 목조건축사의 관점에서 서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넷째, 한국 전통목조건축이 중국목조건축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견해에 대하여, 목조 가구법, 공포의 구성 등의 측면에서 중국건축과 다른 점을 규명할 수 있음은 물론, 한국 전통목조건축의 어떤 부분이 얼마나 중국건축과 어떻게 다른가를 고찰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다섯째, 목조 건축에 대한 연구는 한족 중심의 중국건축에서 벗어나 당시 동아시아 건축의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국 전통목조건축의 실상에 더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상 언급한 내용 외에도 한국 전통목조건축과 관련된 연구 과제는 많이 있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를 더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목조건축은 건축법식 측면에서만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목조건축이 이루어지고 한 형이상학적인 측면과 연관되도록 연구의 영역이 넓혀져야 한다. 이와 상관하여 한국인의 미의식에 의해 개발되고 정착된 목조 법식과 목조 미학을 찾아내어야 한다.

둘째, 공포와 가구법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전통목조건축에 대한 연구의 영역은 목구조의 맞춤과 이음법, 지붕 구조, 수장재, 창호, 家具, 거기에 수반하는 미의식 등으로 확대되어

야 한다.

셋째, 일제를 거치면서 단절된 전통목조건축과 연관된 장인의 기술도 지속적으로 계승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패·자귀 등을 사용하여 전통 기법으로 목재를 치목할 수 있는 장인은 양성되어야 하며, 새 부재로 문화재를 보수·수리할 경우 문화재의 원래 목재 수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방침도 확립되어야 한다.

건축에서 건축 법식이란 어느 특정 재료를 이용해 구조를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과 기법을 일컫는다. 건축 법식은 재료의 유용성과 특성에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장인 계층의 기술 수준에 의해서도 달라진다. 기술 발달을 좌우하는 것은 경제성과 표현에 관한 욕구와도 관계한다. 경제성은 최소한의 재료와 노동력으로 최대한의 안정성과 내구력을 얻으려 하며, 표현욕구는 그 문화가 요구하는 의미 있는 형태를 추구한다. 따라서, 건축 법식은 그 문화에 속한 미의식을 나타낸다. 미의식에 나타나는 건축의 내용과 형태는 건축 법식을 전달하는 표현의 요소이다. 법식을 창조하는 근본적인 힘은 과거 건축에 대한 전통적 경험, 같은 시대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환경이 주는 영향, 그 문화나 장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기법과 표현을 하도록 하는 내적 힘에 기인한다.

* 주제어(key words): 한국전통건축(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시대구분(Classification of the Period), 목구조(Wood Structural System), 중국전통건축(Chinese Traditional Architecture)

참고문헌

- 高裕燮, 『한국건축미술사초고』, 대원사, 1999, 考古美術同人會, 1964.
- 郭湖生 主編, 張十慶 著, 『東方建築研究』(上冊), 天津: 天津大學出版社, 1992.
- 關野貞, 『朝鮮の建築と藝術』, 東京: 岩波書店, 昭和 16.
- (姜奉辰 譯, 『韓國의 建築과 藝術』, 산업도서출판공사, 1990)
- 關野貞, 『朝鮮古跡調査報告』, 1914.
- 金東旭, 『韓國建築工匠史研究』, 기문당, 1993.
-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1997.
- 金東賢, 『韓國古建築斷章 下: 技法과 法式』, 東山文化社, 1977.
- 金東賢, 『韓國木造建築의 技法』, 도서출판 말언, 1995.
- 金正基, 『韓國木造建築』, 一志社, 1987(1980).
- 대한건축학회 편, 『한국건축사』(건축학전서 2), 기문당, 1996.
- 藤島亥治郎, 李光魯 譯, 『韓의 建築文化: 나의 研究 六十年』, 技文堂, 1986.
- 藤島亥治郎, 『朝鮮建築史論』, 景仁文化社, 1968.
- 米田美代治, 申榮勳 譯, 『韓國上代建築의 研究』, 東山文化社, 1976.
- 朴彥坤, 『韓國建築史講座』, 文運堂, 1998.
- 潘谷西 主編, 『中國建築史』(第四版), 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01.
- 潘谷西 主編, 『中國古代建築史 第四卷』(元·明 建築), 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01.
- 傅熹年 主編, 『中國古代建築史 第二卷』(兩晉·南北朝·隋·唐·五代 建築), 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01.
- 杉山信三, 『高麗末 朝鮮初의 木造建築에 關한 研究』, 考古美術同人會, 1963.
- 杉山信三, 『韓國の中世建築』, 東京: 相模書房, 1984.
- 申榮勳, 『韓國古建築斷章 上: 그 背景과 意匠』, 東山文化社, 1975.
- 申榮勳, 『韓屋과 그 歷史: 韓國建築史 序說』, 東夷文化社, 1975.
- 劉敦楨 主編, 『中國古代建築史』(第二版), 中國建築工業出版社, 1984.
- (정옥근·한동수·양호영 번역, 『중국고대건축사』, 세진사, 1995)
- 劉致平, 『中國建築類型及結構』, 北京: 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00.
- 尹張燮, 『韓國의 建築』,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 李允鉾, 『華夏意匠』, 香港: 廣角鏡, 1982.

(이상해 · 한동수 · 이주행 · 조인숙 번역, 『중국고전건축의 원리』, 시공사, 2000)

張慶浩, 『韓國의 傳統建築』, 문예출판사, 1993.

張起仁, 『韓國建築辭典』, 普成文化社, 1985.

鄭寅國, 『韓國建築樣式論』, 一志社, 1974.

주남철,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0.

朱南哲, 『韓國建築意匠』, 一志社, 1997(제3판).

주남철, 『한국의 목조건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中國科學院自然科學史研究所主編, 『中國古代建築技術史』, 科學出版社, 1990.

한국건축역사학회 엮음, 『한국건축사연구 1: 분야와 시대』, 도서출판 발언, 2003.

한국건축역사학회 엮음, 『한국건축사연구 2: 이론과 쟁점』, 도서출판 발언, 2003.

Tasks and Methodology of Wood Structure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Lee Sang-hae*

This study states that the wood structure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can not only be distinguished from Western architecture but also from Chinese architecture, whi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tudies related to the history of Korean architecture which was mainly focused on wood structure by the Japanese scholars in the early 1900s, classified wood bracket (包) using the terms 'cheonchookyang (天竺様)' and 'dangyang (唐様)' based on the location and number of wood brackets. After being set free from the Japanese colonization, such classification formed the basis of the classification of Korean wood structure till now by being renamed as 'joosimpo (柱心包)' and 'dapoo (多包)' by Korean scholars. The study points out the problems related to this classification of appellation.

Second, the study states that when classifying the period of the history of Korean architecture based on wood structure, such classification may differ from the classification based on dynasty, which is resulted from the immanent study in wood architecture itself.

Third, the study states that studies related to wood structure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can contribute in describing the history of Korean architecture in the view of

*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the history of wood structure considering the variation of wood structural system including study concerning wood bracket.

Fourth, as for the opinion that the wood structure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has not fully taken off the influence of the wood structure of Chinese traditional architecture, the study states that the wood structure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differs from that of Chinese traditional architecture in its structural system, and wood bracket structure, and also states which aspects of the wood structure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differs from that of Chinese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how much the wood structure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differs from that of Chinese traditional architecture.

Fifth, the study states that studies related to wood structure must be performed in the view of the East Asian architecture at that time rather than focusing on Chinese architecture which was centered to the Chinese so as to fully understand the real facts on the wood structure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Other than what is stated above, there are still many subjects to be studied in the field of wood structure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which may include the following.

First, studies related to wood structure of traditional architecture must broaden their horizon so that they not only include the task and methodology of wood structure but also include its metaphysical aspect to achieve wood structure.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find the task and methodology of wood structure and wood aesthetics that were developed and settled based on Korean aesthetical spirit.

Second, the sphere of the studies related to wood structure of traditional architecture which was focused on wood bracket and structural system must be broadened to include joint of wood structure, roof structure, fittings, wood furniture, and the accompanying aesthetical spirit.

Third, ways to continuously succeed the technology of artisans related to wood structure of traditional architecture, which was interrupted by the Japanese colonization, must be considered. For example, artisans who can deal with wood in a traditional technique using plane and adze must be trained. Also, when repairing and fixing the cultural inheritance with new materials, how to maintain the original species of timber

must be considered.

Task and methodology of architecture in architecture refers to the task and methodology being used when building a structure using a certain material. Task and methodology of architecture is not only affected by the usefulness and characteristic of the material but is also affected by the technique of the artisan. The artisan's technique is related to the sense of economy and desire for expression. Sense of economy means that the artisan intends to achieve the best stability and durability with the least material and labor, and desire for expression means that the artisan seeks a meaningful form which its culture requires. Therefore, task and methodology of architecture reflect the aesthetical spirit of its culture. The contents and structure of architecture reflecting aesthetical spirit are a way of expressing the task and methodology of architecture. The main force creating the task and methodology is derived from traditional experiences regarding architecture in the past, the influence of different cultural environment under the same age, and the internal craving of the culture or artisan to develop a new technique or expression.